

전남도-시·군-대학-기업, 조선 인력난 해소 '맞손'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협약 외국인 인력 수급 모델 정착 각계 역할 분담 협력 강화

전남도와 일선 시·군, 대학, 기업이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6일 목포대학교 신해양산단 캠퍼스에서 제14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신현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정대성 대한조선 대표이사, 전남 대불산단 입주업체 등 조선해양기업, 지역 대학, 유관기관, 도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선해양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최근 늘어난 선박 수주도 조선

인력 수급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도·시·군-기업-대학 등 업무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만 (유)한국씨포트 대표이사, 김동현 (주)청진 이사 등 13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협약식에는 전남도, 해남군,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두 기업의 사내협력사,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목포대학교, 세한대학교, 초당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보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교류 협력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지역 사회 정착·시범사업 홍보 지원 등이다. 성공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 모델 정착과 확대를 위해 각계 역할 분담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조선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해 지자체-기업-유관기관 간 조선인력 수급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각종 제도 개선 건의, 인력 양성 사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 올해는 조선기능인력 훈련 수당 지원,

조선해양 청년일자리 지원 등 내국인 1천300여명 인력 양성을 지원했다. 또 청년층 등 내국인 신규 유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조선도장·용접공 쿼터제가 폐지됐다. 대학의 우수 외국 유학생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160명을 지원하는 한편, 생산 현장에 설비 자동화를 도입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산혁신지원사업으로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전남도는 2023년에도 수주 호황을 뒷받

침할 생산 기반 향상을 위해 인력 양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 2천여명의 인력 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계 물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불국가산단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개발 실증, 조선해양 업종특화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와 미래 친환경 선박 선점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창환 정부부지사는 "최근 조선산업은 수주 호황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 등 생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자체-기업-대학 등이 상호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도 차원에서도 시범사업 확대, 사업 발굴 건의 등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주력

전남도인권센터는 6일 도청 왕인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방안 마련과 인권공동체 구현 촉진을 위한 '2022년 전남도 도민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교수, 변호사, 도의원, 민간단체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인권센터가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선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관련 향후 과제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인권환경 모니터링 및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재정기자



업무개시명령 중단하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13일째인 6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국민의힘 광주시장 앞에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총파업-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김재정기자

빈집 정비 도민 생활환경 개선 나선다

도, 5년간 140억 투입 1만동
전남도는 6일 "2023년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빈집 1만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썬지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5천203동 가운데 27.1%인 1만7천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정기자

매년 시·군에서 20억원의 자체 사업비로 1천400여동을 정비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7천300여동을 정비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도비 42억원을 포함 총 140억원을 들여 매년 2천동씩 총 1만동을 정비해 도민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빈집 정비에 시·군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빈집 정비 실적이 우수한 3개 시·군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전남 고병원성 AI 지속 확산

함평 산란계 농장 확진...나주 육용오리 농장 항원 또 검출 살처분 범위 반경 2km로 확대...18일까지 전체 582농가 검사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함평군 염다면 산란계 농장(8만마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올 겨울 들어 전남도내 10차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1km 내 2농가 12만7천마리를 살처분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는 33농가가 160만7천마리(닭 25농가 146만8천마리,

오리 8농가 13만9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역 별로는 나주 3농가 25만8천마리, 무안 13농가 47만9천마리, 함평 17농가 87만마리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나주 동강 육용오리 농장(1만2천마리)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반경 2km 내 3농가 3만1천마리가 살처분됐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는 51농가가 301만5천마리(닭 39농가 281만7천마리, 오리 12농가 19만8천마리)를 사육 중이어서 AI 추가 발생 시 대량 살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부터 고위험 지역인 나주·영암지역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반경 1km 내 살처분하던 것을 반경 500m 전 축소, 오리 발생시 반경 2km 내 오리 등으로 넓혔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신고 접수 즉시 방역본부 초동 방역팀 2명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원인조사 등을 위해 도 현장지원관 1명을 긴급 파견했다.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은 이동통제와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지역에 포함된 가금 49농가에 대해 신속히 검사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도내 전체 가금농장(582농가)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2주간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남에서는 11월 17일 장흥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11월 23일 나주 육용오리 농장, 11월 27일 고흥 육용오리 농장, 11월 29일 나주 산란계 농장·육용오리 농장, 12월 4일 나주 육용오리 농장 2곳, 12월 5일 무안 중오리 농장·함평 산란계 농장 등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은 10건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전남에 이어 충북 9건, 경기 6건, 충남·전북·경북 각 2건, 울산·강원 각 1건 등 총 33건이 발생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방역 지역 집중소독과 이동통제, 정밀검사 강화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금 농장에서는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엄격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

전남도는 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2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예정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인 '유기농 새싹보리 농가의 신소득 창출 하다'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전남도는 2022년 사업에서 7개 시·군에 9개소 총 85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전국 총사업비 167억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의 51%로 전국 최다 규모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보리산업특구인 영광에 저온저장고 및 친환경농산물 전처리 시설 구축을 위해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그 결과 영광군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 중인 친환경 새싹보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안정적 수익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정기자

녹색에너지, 청년근로자 통합 워크숍

에너지에너지연구원은 6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근로자 통합 워크숍을 소노벨 변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환경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협업 능력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미래 설계를 위한 비전 교육, 소시오 드라마 등을 통한 조제&취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환경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협업 능력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미래 설계를 위한 비전 교육, 소시오 드라마 등을 통한 조제&취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환경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시행하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 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픈 상담 ▶
절차적 편의 법적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역앞 양한방병원 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 6층연건평1,345㎡
○ 병실25개, 70베드, 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쿨러, 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인수와 동시에 빈몰 영입가능
[급매] 27억5,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은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9-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를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